

#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9호 [루계 제2570호]

주제 108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음력 11월 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방사  
포시험사격을 참관  
하시였다.

초대형방사포의  
전투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함에 목  
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련발시험사격  
을 통하여 무기체계  
의 군사기술적 우월  
성과 믿음성이 확고  
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험사격결과에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은 인민군대

의 군사기술적 강화를 위하여 올해에 만도

라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 진행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가 25일부터 29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의약품, 의료기구의 국산화』를 주제로 하여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보건부문과 련

관부문의 240여개 단위에서 출품한 2500여건의 의학과학 연구성과들이 전시되었다. 전시회기간 간 과학기술발표회와 지적재산권교류도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참

####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 준공식 진행

민족간부육성의 중심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이 홀륭히 꾸려졌다.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과 동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주는 교육교양거점, 과학연구보급기지로 개진된 자연박물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표본을 비롯한 1만여점의 각종 표본들이 14개의 부문별전시구역으로 나뉘어 진렬되어 있다. 연건축면적이 1만 8000여m<sup>2</sup>에 달하는 첨단기술개발원은 9개의 각이한 연구개발구역들과 토론회실, 공동개발

본사기자

### 위대한 김정은원수 만세

재중동포 김필

새로운 경제발전 더욱 크게 도모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 마련해주시려  
온갖 심혈 부으시는분

그 흥금 넓고 깊어 온 세상을 감싸안으신분  
저 눈부신 태양파도 같은 찬란한 웃음으로  
희망찬 미래 굳게 약속해주신분  
세상은 절세의 위인—김정은원수께  
그토록 아름찬 기대가 있네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거룩한 모습 우러러  
8천만 백의민족 거레는 큰 축복 드리네  
위대한 김정은원수 만세!

### 제일 강하신 정치가, 문무를 겸비하신 위인

#### 외국의 벗들 격찬

송고한 의지, 담대한 배짱을 지니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

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외국의 벗들이 끌

끌어들여 칭송하고있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방문기간 조선의 발전모습을 보며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

심을 금할수 없었다.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인민

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

이 있을것이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대표단 단장 와침 꾸지민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

을 빌어 조선을 통성번영하는 사

회주의 강국으로 전면시켜나가신다

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정치부대에 등장

하신 후 조선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며 세인은 그이의

세련된 령도력과 특출한 외교실력에

스위스공산주의청년대표단 성원 아라우조 다 코스파 스메파노 죄세

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신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정치가이신 그이께서는 평활한 대외활동으로 국제정치정세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시며 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파시

하신다.

인류는 머지않아 유일무이한 리상 국가로 우뚝 솟은 조선의 모습을 목

격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인민사랑이 안아온 바다의 만풍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 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행동적 장고들마다 차푸자 꽈꽝 들어찬 물고기들을 바라보이며 그이께서는 물고기행동볼로 크들을 보고 금괴를 울려 쌓은 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이상 적중한 비유가 없을 것 같다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물고기행동볼로크들이 그이의 마음속에 금괴처럼 안겨온 것은 인민을 위한것, 인민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것이 없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산업발전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8월25일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물고기 잡이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가공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풍어기를 둘이 날리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언제인가는 짧은 기간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어로공

들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사업소를 찾으시여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였고 또 언제인가는 사업소를 찾으시고 만선하고 귀환한 배에도 오르시여 어항에 가득차있는 물고기들을 보시고 정말 멋있다고 하시며 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로공들은 자기들의 더운 퍼와 땀으로 황금해력사창조의 첫 폐지를 쓴 위훈의 장고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세상에 바다는 많아도 황금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황금해.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헌신으로 날로 풍요해지는 조선의 바다이다.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시며 만시름을 윗으신듯 활히 웃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 그대로이다.

동해어장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너무 기쁘시여 떠나갈 땐 빼놓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고 흥겨운 노래가락을 넘기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진행된 경

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도 고기배를 무는데 대하여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생애의 마지막시기 인민들에게 차례질 물고기 공급에 관한 문건에 수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체103(2014)년 11월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하루장에 펼쳐진 물고기바다를 보고 또 보시며 년간에 쌓인 퍼로가 다 풀린다고, 너무 기뻐 요즘은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노래구절에도 있듯이 포구엔 절세위인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가득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에는 넓고넓은 바다를 통해 인민들을 위한 재부로 전번시키고 싶으신 절절한 소원이 그대로 어려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신선한 물고기를 제공으로 경상적으로 공급해주시려 마음쓰시며 하루에 차례질 량과 년간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그이의 사랑과 로고속에 전변은 동해에 이어 서해에서도 일어났다. 젖갈을 공업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대구



무릇 동심은 호기심많은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이기도 하다.

하늘을 훨훨 나는 비행사, 위성을 쏴올리는 과학자가 되고싶기도 하지만 가보고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은 세계인가.

신기한 별나라, 희귀한 물고기들이 노니는 바다가...

그것이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것은 사실이지만 말그대로 꿈의 세계이고 동경의 세계일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나날이 부푸는 동심의 꿈과 환상같은 세계가 현실로 펼쳐지는 집이 있다. 바로 그 집이 평양교원대학이다.

\* \* \*

누구나 선뜻 믿어지지 않을것이다.

6살, 7살초등의 어린이들이 로보트를 설계하고 조립도 하리라고는.

그러나 부속유치원과 부속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과의 교육기지를 찾으면 해설자자파로 필요없다. 서로 다른 광경들이 모든것을 설명해준다.

단풍잎같은 귀여운 손이 로보트를 조립하는 모습도 신통스럽지만 컴퓨터화면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며 멋있고 흥미진진 모형착상에 몰입해있는 어린이들의 눈빛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과학자들인양 자못 진중하다. 그런가 하면 조립을 끝내고 가동시킨 로보트가 회전하는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울리는 모습은 더욱 기특해보인다. 하기야 자기가 착상한 로보트가 움직이는것을 볼 때의 기쁨을 그 무엇에 비기랴. 아마도 로보트는 동력을 주어 움직일수 있다는데 어린이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가싶다.

결국 로보트를 만드는 과정에 어린이들은 그 구조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동력전달원리와 전자공학의 원리도 깨우치는 등 과학기술적인 교육을 받고 외적인 형태와 색깔설계과정에는 미술적이며 조형예술적인 감각과 소질을 발휘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두달정도 로보트종합교육을 받은 8살, 9살나이의 소학교 학생들은 컴퓨터상에서 오토바이, 비행기, 벨트콘베어, 선풍기로보트 등을 엉뚱하면서도 과학적리치에 맞게 설계 할뿐아니라 로보트부분품으로 해당 로보트를

모수산물가공기지인 금산포젓갈 가공공장이 서해포구에 현대적으로 건설되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있다.

지난해말 이를동안 현숙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산들을 쌓아놓은것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정말 좋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물고기잡이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여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였다.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오는 고기배들, 물고기비린내가 물전 풍기는 포구, 밤낮으로 물고기 폭포를 쏟아내는 하루장, 금파마당 쌓아올린 물고기블로크들이 가득찬 행동적 장고와 생산자들의 일손이 드바쁜 물고기 가공장...

통천 물고기 가공 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해의 혁신가가 계속 창조되는것만큼 반갑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고, 올해는 농사도 대풍인데 수산도 대풍이 들겠다고 거듭거듭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바다의 만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땅에 사회주의마다 향기가 차넘치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창조와 건설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는 공화국은 방위력강화에도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튼튼한 군력이자 국력이고 평화와 번영의 담보이다.

인민군대는 무적의 총대로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철옹성같이 지켜가고있다.

강력한 군력에 국가의 자주적 존엄과 불폐성, 훠황한 미래가 있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외진 섬초소인 창령도방어대와 외진 바다가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492군부대 판하 너성중대를 찾으신것도 군력강화를 위한 에국현신의 시찰이다.

창령도방어대와 너성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가르쳐주시고 뜨거운 고무격려도 해주시였다.

방어대를 찾으시여 해안포중대 포진지에서 군인들을 만나신 그이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고도의 경각성, 조국수호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밀움직임한 인민군인들이 있기에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이 억척같이 담보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방어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지휘부와 중대병실로부터 식당, 공장고, 온실, 목욕탕 등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실태를 세세히 알아보시였다. 학교와 유치원 실태도 헤아려보시며 군관가족사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너성중대를 찾으시였을 때

에도 칠실, 식당, 바다물정제실 등 중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이 지내는 너성군인들의 생활모습을 보시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방어대와 너성중대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인민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이시였다.

설방어대와 너성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가르쳐주시고 뜨거운 고무격려도 해주시였다.

방어대를 찾으시여 해안포중대 포진지에서 군인들을 만나신 그이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고도의 경각성, 조국수호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밀움직임한 인민군인들이 있기에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이 억척같이 담보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고 하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더 현신적으로 복무해 달라고 당부하시였다.

조국보위와 군력강화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인민군인들을 친부모의 사랑으로 국전히 보살펴주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정력적인 정도에 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은 백방으로 다져지고 사회주의건설은 굳건히 담보되고있을 것이다.

김금혁

그리고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쟁기의 고귀한 산물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다. 여기에서는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더이다. 자기 힘을 믿고 달라붙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화학공업을 세계적인 발전주체에 맞게 에네르기절약형, 로력 절약형으로 전환하여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크릴계 철감생산공정은 자강력제일주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쟁기

의 고귀한 산물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다. 여기에서는 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그곳 파악기술력량과 생산자들은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 철감생산공정을 자체로 만들고 도입시험에서 단번성공하였으며 그 믿음성이 확고히 담보된 질좋은 철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 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이다라고 하시였다.

공상과 티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보다실이 공화국의 아이들의 꿈은 결코 먼 앞날의 공상도 리상도 아니다. 그 꿈은 과학적이며 실현가능한 공화국의 아름다운 미래이다.

인생의 빛나는 성공의 자족도 오람에 깃들던 어린시절의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절세위인의 웅심깊은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성장해가는 공화국의 아이들의 꿈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세계를 암도할 애심과 지성의 힘이 그들의 두뇌와 가슴에서 분출할 시각은 멀지 않았으니 지식경제시대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가는 공화국의 발걸음을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조국찬가』의 구절구절과 더불어 그 얼마나 더욱 기운찬것인가.

본사기자 박영진

## 숭고한 후대사랑 속에 나래치는 환상의 세계

도 가보며 자연현상을 생동하게 관찰하는 과정에 상상력도 풍부해질것이니 그야말로 평먹고 알먹는 격이다.

어디 그뿐인가.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체계에 의해 교실에서도 삼천리금수강산의 가보고싶은 그 어느곳이나 다 가볼수 있으니 현지에 가지 않고도 해당 지역에서 벌어진 혁신적사실이나 주요사건 등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식은 또 얼마나 풍부해질것인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머니교실도 마찬가지이다. 이 교실에서는 종묘한 어린이와 심리미발달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방법, 초등학원 원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주는 방법, 어머니들이 가정세간들을 교양수단, 교육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 외에도 춤을 추고 시도을 하면서 복잡한 계산을 동시에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노래를 노려나올 때 다섯자리 이상의 사칙계산도 정확히 해내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조망이 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물고기들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고기들이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학교에서 물고기들이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교육사업에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실천실기 교육을 많이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날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친침들을 하나님과 연구하는 과정에 무르익힌 착상과 방법들이다.

철부지만 같은 아이들의 작은 가슴에 큰 포부가 자리잡은것을 보며 제일 기뻐하는것은 이 나라의 부모들이다. 이 세상 부모자치가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이다.

외국의 한 인사는 방문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조선에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근원을 여기

평양교원대학에서 찾았습니다.』

\*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장의 박동으로 암고 하나를 통해 열, 백을 알게 하는 현대교육기술을 부단히 개척해가는 교육자들에 의해 오늘도 공화국의 아이들은 지성의 자양분을 한껏 섭취하며 과학적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있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세계 여러 나라 손님들은 한결같이 대학에서 창조한 교육방법이 세계적수준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통일의 길에 빛나는 위인의 명언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는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원동력을 밝힌 강령적 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끌어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전제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이다.

오랜 세월 하나의 퍼줄을 잊고 한강 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간이나 둘로 갈라져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분열은 민족의 의사가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산물이며 이 비극을 끌어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최대의 민족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은 서로 다른 민족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민족 간의 문제로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 문제이다.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 적당당자이다.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내부 문제에 끼어들어 간섭하거나 개입할 명분이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데서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져 강대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하기에 외세에 추종, 외세 공조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 그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 이 없다는 것은 지나온 민족분열사의 척결한 교훈이다.

조국통일 위업 실현의 근본방도는 민족주의의 가치밀에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하는데 있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의의 차이를 조율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선 사람이라면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통일에 국의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오직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 성업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함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훤히 밝혀준 고귀한 명언이다.

온 계에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민족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림명호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져 강대해지는 것을 결코 예상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상 대방인 북을 겨우 대결을 겪으려고 판계 개선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대결정책과 전정책 등에 계속 예상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상 대방인 북을 겨우 대결을 겪으려고 판계 개선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대결정책과 전정책 등에 계속 예상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남조선민들은 남조선에 군사파초 《정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북남대화도,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87년 11월 11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협회를 열고 《남조선의 현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조성된 사례에서 북과 남이 진정으로 힘을 합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능히 현정세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면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민족단합 5개방안을 담아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셋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용공세력 척결》을 떠들면서 민족단합 5개방안을 통하여서는 대화와 접촉을 바라는 남조선의 모든 인사를에게 아무때나 외왕의 문을

## 통일에 국의 역정을 더함에 (17)

# 획기적인 민족단합 5개방안의 제시

1980년대 중엽에 평화국정부의 주동적인 조치로 북남대화가 새롭게 열리고 판계 개선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으로 끌어들여 실전배치하는가 하면 《북의 기습남침》을 운운하며 《다각적인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여를 토하였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남조선인민들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전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서 남조선민들은 남조선에 군사파초 《정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북남대화도,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유일한 길은 북의 사회주의의 힘과 남의 민주주의 힘을 단결하는 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서로 단결하고 통일하는데 장애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는데서 가장 긴절한 문제는 《반공》을 배격하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용공세력 척결》을 떠들면서 민족단합 5개방안을 담아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셋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전쟁으로 높아날 것은 조선인민뿐이며 덜은 외왕의 문을

나 군사파초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자신하여 민주주의를 선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파초 세력의 폭력 앞에 굽하지 말고 그들이 내드는 가짜민주화, 가짜문민정치에 기만당하지 말아야 하며 민주화투쟁을 끝까지 벌여 민주정권을 기어려고 생활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공》을 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정권이 서고 민주정권에서 울림의 경기 대회를 하게 되면 쌍방이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공동주최 문제를 신축성 있게 협의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하여서는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우리는 핵전쟁에 절대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평화에 호적립장으로 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 민주정권이 서면 그와 지체없이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를 공동으로 강구나갈 것이다.

그러한 긴급조치로서 우선 시험적으로 최소한 제24차 국제울림의 경기 대회와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진행되는 1988년부터 1989년까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핵전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핵전쟁 조치에는 전연지대에서의 쌍방

무력의 철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의 중지, 지상과 해상의 접촉구역에서 상대방을 향한 총포사격의 무조건금지,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의 중지, 중립국감시군에 의한 감시조직, 쟁방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개설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에서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은 군계 단결하여 군사파초 독재를 종식시켜야 하며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의 새 역사의 장을 펼쳐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민족단합 5개방안은 조성된 남조선 정세의 요구에 맞게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획기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애국적 발기, 현실적 대책이었다.

하기에 민족단합 5개방안은 그 정당성과 현실성, 공정성으로 하여 내외동포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파초당은 이에 불안을 느끼고 민족단합 5개방안을 담은 편지를 《불온편지》라고 하면서 강제 압수하여 그것이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에게 가닿지 못하도록 방해 하여나갔다.

하지만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민족단합 5개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북과 남이 힘을 합치고 민족이 단합하여 련방제 통일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나섰다.

손화복

## 수기

# 창만과 열정의 삶을 즐고 마운 조국 (1)



최로사 선생

으로 출연하여 인기를 독차지했다.

언제인가 할머니가 간수하고 있던 사진을 보았는데 늘씬하고 인물도 고운 종조할머니는 바야흐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모란꽃과 같았다.

그러나 예술계의 별로 빛을 뿐인 할머니는 나에게 자주 고향소리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눈물부터 흘리군 했다. 그리고는 《광화문광장을 지나 조금 돌아가면 내가 다닌던 학교가 있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때 어린 소녀의 눈앞에 매일 매 시각 떨쳐지는 것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족들의 가공한 모습이었고 들판에는 지칠대로 지친 어머니의 한숨소리뿐이었다.

그때 만발에 대한 기대가 큰지라 겨우 불여놓은 학교라는 것은 자기 이름까지도 말이 조선사람이 다니는 학교이지 왜 나라학교나 다른바 없었다.

할머니의 회상에 의하면 나의 종조할머니 석금성은 서울바닥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있는 인기 배우였다고 한다.

그 시기 나는 화선수첩에 많은것을 써놓았다. 가사 《샘물터에서》는 준엄한 1950년 10월의 그 가을 날에 거기에 써놓은 습작품이었다. 이것이 나의 첫작

말로 자기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야 하는 암흑의 시절이었다. 그 황량한 대지 위에서 어린 소녀는 유톤을 풀어놓은 모란꽃과 같은 꽃망울처럼 시들어갔다.

하기야 나라 없던 그 시절엔 온 민족이 불우한 자가들의 운명을 통탄하였지만 이제 겨우 망울을 터친 연약한 꽃잎과 같은 소녀에게 있어서 그 꾀로 움은 어찌 떠울리군 하는 달콤한 광상으로 학교에 다니던 할머니마저 퇴학당하고 말았다.

속수무책으로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를 형편이었다. 돈, 어제 가서든 돈을 벌어야 했다.

집안의 딸딸로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할머니는 어느 날 종로에 있는 극장으로 갔다.

말이 인물십사장이 너성으로서의 치욕을 참아내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고생하는 어머니와 짖고 있는 동생들 생각으로 온갖 수치를 참아내며 당시로서는 펴 그나 많은 선금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난생처음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쥐고보니 가슴이 막 활벌거렸다. 벌써부터 눈앞에 너무 좋아 깡충거리는 동생들과 시름이 쌓였던 얼굴에 홍조가 피어 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막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소녀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마구 집어뿌리며 가득한 땅의 동실한 어깨를 절어버렸다.

아름다운 것과 정의를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었다.

사람들은 차츰 균형을 되찾아온다.

너더러 그런걸 가라고 했니? 누가?

어머니의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자 순진했던 소녀는 어쩔 줄 몰라 하였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식민지에 술인 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자 할머니의 가정에는 《월북자가정》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홍행국단에서는 나의 종조할머니를 쫓아냈다.

하기야 나를 불러 앉히고 곧 북으로 떠나라고 일렀다.

그때를 회상하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보슬비가 내리는 서울역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자 순진했던 소녀는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 날은 1948년 3월 3일 경이었다.

어머니는 이 땅에서 더는 살길이 막막하니 어서 북으로 가라고, 나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하였다. 자기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좀 나으면 인자 뒤따라서겠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면서도 내가 제일 사랑하던 어머니와의 영원한 리별로 떨쳐 끌 끝에도 생각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때를 잊지 못해 시 《내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렇게 썼다.

찬비는 하염없이 내리는데 눈물도 하염없이 흘리며 스산한 내 고향 서울역 두

에서 헤어진 내 어머니 그날에 떠나는 차창가에서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

가슴깊이 새기면서도 그것이 이토록 긴 리별이

될줄 알았으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여 장장 40여년

그 모습은 뿐만 안개속에 서있는

조각상처럼 남아있어 설움이 가득 담긴 그 눈빛

서글픈 입가에 애써 떠돌던 그 미소

자꾸만 희미해지려는 그 영상

소스라쳐 놀라며 내 기억

다잡을 때면 이 가슴에 아니라 퍼가 흘러라

…

이렇게 헤여진 어머니를

할머니는 끝내 만나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수십년전에 헤여진 어머니가 그리워 며칠밤을 뜯어내던 할머니의 모습이 흔들리며 흘러내리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자 대학

# 무모한 군사적 허세가 초래할 후과

이해도 하루하루 저물어가는 지금 남조선의 군부호전 세력들이 반공화국대 결속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군부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해군 주도의 다국적 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미국의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 호와 군수지원함, 잠수함을 비롯하여 10여 척의 전투함선과 해상순찰기 《P-8A》 편대, 오스트랄리아의 이지스 구축함 《호바트》 호, 카나다의 호위함 《오타와》 호, 남조선 해군의 구축함 《최영》 호와 해상작전직승기 등으로 진행되어 판도주변에서 벌어진 이번

다국적 훈련은 태평양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가정한 연합기동훈련, 실탄사격훈련, 대함 및 대공방어훈련, 대잠수함작전훈련 등으로 진행되었다.

짙은 화약연기를 풍기면서 진행된 《페시픽 뱅가드》 훈련은 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더 한층 격화시키고 전쟁위협을 조장하는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미국주도의 연합 해상훈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 행위이다.

지금은 거제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족의 이러한 지향과 원에 도전하여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년례적》, 《방어

제 암하기 위한 대 기본을 두고 벌어진 것은 이에 대한 실증이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페시픽 뱅가드》 훈련 참가에 대해 숨기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드러나자 금기야 훈련 참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무모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모처럼 미국주도의 전쟁연습에 참가한 것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 행위이다.

지금은 거제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족의 이러한 지향과 원에 도전하여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년례적》, 《방어

제》의 미명 하에 《명칭》을 변경하면서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그칠 새 없이 벌려온 것도 성차지 않아 태평양 한가운데 나가서까지 미국의 불장난에 편승해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민족의 네도 평화의지도 없는 쓸개빠진 망동이다.

저들의 외세주종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모처럼 미국주도의 전쟁연습에 참가한 것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 행위이다.

지금은 거제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족의 이러한 지향과 원에 도전하여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년례적》, 《방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 시간 남기고 남조선이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8월 남조선을 《백색 국가》(안보우방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항의하여 현 당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기로 하였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결기 있는 정권》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현 당국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둔 시각에 충청남도에 있는 어느 한 광장준공식에 참가하여 《반도체부품》 자체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할 때만도 《결연한 반일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듯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다. 남조선의 혁대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현 당국 역시 미국에 굴복함으로써 협정종료는 연기되며 되었다. 남녘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위해 남조선에 《방위비》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수령한 뿐이다.

본사기자 김 응철

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여 협정연장을 발표한 당국을 비난하는 톤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협정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사기자

## 남조선 각계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무조건 폐기를 요구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는 론평을 통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협력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은 선

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



공화국에는 사람들의 인기 를 끄는 여러 가지 레리 전문 식당들이 많다.

평양시에만 보아도 산물고기를 가지고 레리를 만들어 봉사하는 평양대동강수산물 식당이 생겨나 편의 손님들로 흥성하고 있다.

평양역면으로 온 나라에 소문난 유품관에도 레리 전문 식당이 있다. 이밖에 평양초밥 전문식당, 이 말리아로리 전문식당, 강생이 전문식당 등 고유한 민족음식과 세계의 이름난 레리를 봉사하는 식당들로는 사람들의 발

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

보통 강변에 자리잡은 평양역면 전문식당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당의 하나이다.

평양역면 전문식당은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놀 마음 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속에 일떠선 금양봉사기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해

조인간적인 의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조선동해에서 대서양 렌어가 성공했다는 보고와 함께 바다에서 처음으로 자래운 10kg이 넘는 렌어를 보게 되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케기밥을 드시면서도 언제면 우리 인민들에게 렌어를 맛보게 할 수 있겠는가고 그리도 많이 물으시면서 온갖 대

책을 세워주신 장군님이시였다. 렌어를 쓸어보시고 괴로도 만져보시며 자신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 렌어를 번개 들어올리고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렌어를 먹게 되었다고 세계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 싶다고 하시였다.

그 사랑속에 평양역면 전문식당도 일떠서게 되었던 것이다.

렌어는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당뇨병과 급성간염, 비뇨기계 통증 병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며 로화를 방지하고 암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하여 고급어족으로 되고 있다.

특히 대서양 렌어는 기름지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가 높고 성장 속도가 빠르므로 세

계적으로 수요가 매우 높다. 『우리 식당에서는 180여 가지의 렌어로 레리를 봉사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곳 식당의 변분우소장이 하는 말이었다.

렌어로 만든 레리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가고 묻는 기자에게 변분우소장이 렌어탕, 렌어회국수, 렌어초침, 렌어알초밥, 렌어배살랭채, 렌어배살빼튀기... 하고 꿈나라에 끌고 있을 상상지 않았다.

렌어는 대가리로부터 꼬리, 뼈에 이르기까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곳 식당에서 처음부터 렌어로 레리를 잘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레리사들이 렌어로 레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니나 렌어의 고유한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교훈을 찾은 변분우소장은 레리사들이 과학기술 보급 실을 통하여 레리기술자료들을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하였다.

배운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레리 수준을 높여나갔다. 레리사들만이 아니라 봉사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레리사가 되고 심사원이 되어 참가하는 레리 품평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새 레리들이 많이 창안되었다. 김성준주방장이 창안한 렌어고리튀기로도 그중의 하나이다.

점차 이 식당의 레리가 정말 맛있다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갔다.

외국인들도 평양역면 전문식당의 레리를 맛보고는 『렌어로 레리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보다 더 고유한 맛을 내고 있다.』, 『진귀한 렌어로 레리를 평양에서 맛보니 놀랍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평양역면 전문식당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동해의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진귀한 렌어로 레리를 맛있게 드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으면 렌어로 레리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이곳 식당 종업원들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대설파 동지는 24절기 가운데서 12월에 드는 절기이다.

대설은 한해 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다. 일찍 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2월 7일이나 8일에 든다.

예로부터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그해 겨울은 푸근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추운 겨울이지만 농기구들을 만들거나 수리하고 거름모으기를 진행하는 등 다음해 농사비를 착실하게 하였다.

동지는 겨울에 다 이르렀다는 것을 일러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2월 22일이나 23일에 든다. 동지날에는 한해 가운데서 해가 제일 늦게 끄고 일찍 지는데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는데 나이를 하루라도 먼저 먹고 빨리 크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애동지를 특별히 좋아하였다고 한다. 동지날에 해먹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뚝섬은 팔에 훈쌀과 물을 두고 쑨 동지죽(동지팥죽)을 끄는데 든다.

동지죽에는 반드시 수수 또는 찹쌀가루 등을 가지고 크기는 새알만하고 동그랗게 빚은 새알심(오그랑이)을 넣고 하였는데 북쪽지방에서는 주로 찰수수가루를, 남쪽지방에서는 찹쌀가루 등을

리용하였다. 동지죽을 쫓을 때 다른 새알심들보다 큰 새알심을 몇 개 민들어 넣어 아이들이 먹게 하였는데 큰것이 차례로는 아이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동지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돌아이켜보기도 하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들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의 하나였다.

올해에 대설은 12월 7일이며 동지는 12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겨울철에 썰매하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들을 즐겨하였다.

▷ 썰매하기 어린이들이 얼음판이나 눈우에서 썰매를 타는 운동놀이이다.

썰매를 타고 눈우를 달릴 때는 말을 탄 것 같다고 하여 『설마』라고 부르던 것이 점차 말을 벗어 근대시기 부터 썰매로 부르게 되었다. 썰매타기는 어린이들의 성

격과 심리적 특성에 맞는 겨울철 운동놀이이다. 썰매타기는 어린이들이 주위를 이겨내고 몸단련을 하는데 좋을 뿐 아니라 용감성과 민활한 동작을 익히는데 유익

## 겨울철 민속놀이 몇 가지 (1)

한 놀이이다.

▷ 팽이치기 팽이를 돌리면서 노는 어린이들의 민속놀이로서 고구려 시기부터 계승되어 왔다.

팽이치기는 평탄한 땅이나 매끈한 얼음판에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누구의 팽이가 더 오래 돌아가는가를 겨루기도 하고 팽이끼리 부딪치게 하여 누구의 팽이가 더 오래 돌아가는가를 경쟁하기도 한다.

팽이치기는 겨울철 어린이들의 몸단련에 좋고 사고력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놀이로서 지금도 널리 진행되고 있다.

▷ 제기차기 염전같이 납작하고 무게 있는 물건에 종이나 짐승털로 술을 붙여 만든 제기차를 차면서 노는 어린이들의 운동놀이이다.

제기차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하였는데 세나리아기부터 전해지고 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제기는 큰 탄환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평의 깃을 꽂아 가지고 두 사람 이 마주서서 다크림을 겨루

## 조선의 국경 충산개를 행회 - 2019 진행

조선의 국경 충산개 품평회 - 2019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와 유원지 종국의 공동주최로 19일과 20일 중앙동물원에서 진행되었다.

수의축산부문, 동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풍산개를 기르고 있는 주민들, 각자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풍평회에는 각 도(직할시) 품평회들에서 선발된 70여 마리의 풍산개가 출품되었다.

풍평회에서는 예비심사, 본사기자



## 12월의 절기와 민속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는데 나이를 하루라도 먼저 먹고 빨리 크고

동지죽에는 반드시 수수 또는 찹쌀가루 등을 가지고 새알만하고 동그랗게 빚은 새알심(오그랑이)을 넣고 하였는데 북쪽지방에서는 주로 찰수수가루를, 남쪽지방에서는 찹쌀가루 등을

## 고추의 매운도 평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고추를 재배하여 식생활에 즐겨 이용하였다.

또한 사람마다 낮잠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비만증환자나 혈압이 낮은 사람, 피순환계통질환자들이 낮잠을 자면 몸에 해롭다.

그들이 혈액을 조인 상태에서 낮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낮잠은 대체로 점심식사후에 자게 되는데 이 시간은 위가 음식을 한창 소화시키는 때이다.

위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에 끓임없이 꿈틀운동을 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운동은 더욱 세진다. 그러므로 혈액을 지나치게 조이면 소화액 분비에 영향을 주어 위의 운동과 소화기능에 부정적영향을 준다.

그 다음 혈액을 5% 사탕용액으로 허석한다.

본사기자

5명의 맛전문가가 이 희석액을 일정한 양씩 맛보면서 그중 2명이 매운맛을 더는 느끼지 못하게 되면 희석을 그만둔다. 그때의 희석수값에 『SHU』(스코빌)이라는 단위를 붙여 검사한 고추시료의 매운도로 한다.

지구상에는 매운도가 수십만스코빌에 수백만스코빌에 달하는 고추도 있다.

그런 고추는 100명분에 해당한 국을 풀 때 한개만 넣어도 매운맛을 내게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매운 고추는 대체로 더운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생육기 일도 같다.

본사기자

그런 고추는 100명분에 해당한 국을 풀 때 한개만 넣어도 매운맛을 내게 되어 있다.

제기차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하였는데 세나리아기부터 전해지고 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제기는 큰 탄환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평의 깃을 꽂아 가지고 두 사람 이 마주서서 다크림을 겨루

면 제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적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한 사람씩 혹은 여럿이 편을 갈라 할 수도 있는 제기차이다.

면 제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적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면 제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런속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